

Ⅳ. 人口와 教育

李 勳 求*

“인구와 교육”이라는 제목하에 筆者에게 주어진 使命은 짐작컨대 팽창할 수 밖에 없는 우리 人口가 教育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검토하라는 것인듯 싶다. 그러나 筆者는 불행하게도 人口나 教育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 문외한이다. 不適格者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拙稿를 쓰게된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번 논문과 똑같은 제목의 것이 바로 1년전 “2000年代를 向한 韓國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이라는 커다란 「심포지움」속에 일부로 辛世浩(1981)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人口 특히 教育人口의 현재와 미래의 構造 및 變動과 그에 따른 각종 教育시설, 財源등이 教育의 質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여러가지 實統計를 동원하여 자세히 검토했다. 따라서 筆者는 구태여 이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함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가 다루지 않은 측면이나 더강조한 면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둘째 이유는 문외한이 생각하는 教育과 人口問題도 한번쯤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에서 이다. 즉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을 구성하는 한分子로서 그리고 또 미력이나마 大學이라는 教育기관에서 훈장을 하는 한교육담당자로서 평소에 느꼈던 소감을 피력해 보려는 動機에서부터 이 글은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은 學術的인 体系의 内容보다 일반적이고 자유분명한 市民的인 내용이 될 것이며 또한 教育에 관한 언급은 筆者가 상대적으로 잘 아는 大學教育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양해 求한다.

本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人口가 教育에 어떤 압박을 주는가를 잠시 概觀할 필요가 있겠는 바 辛世浩(1981)論文의 要點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는 앞으로 人口抑制策이 계속 효과를 보아 出生率이 감소되더라도 國民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의 學生人口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展望했는데 바 그 이유로는 國民의 높은 教育熱 그리고 教育의 大衆化에 따라 上級學校로의 進學率이 현재 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

* 延世大學校 心理學 教授

축적회사업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그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移住에 따른 도시 학교에의 教育人口 부담과 반대로 농촌의 남아 도는 학교시설 및 자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하여 앞으로 계속 都市集中化를 방지하고 地方大學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만 일 어차피 교육인구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전망이라면 그러면 이를 教育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論文에서는 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우리 국민은 向學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熱은 自發的인 것이기 보다는 울며 겨자먹기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고등학교만을 졸업해서는 취직이 어렵고 또 취직이 되더라도 學士出身과의 급여차이가 워낙 크니까 부모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10년간 (1970-1980) 학생 증가추세를 살펴 보면 국민학교 학생수는 약간 준 반면 중학생수는 1.875 배, 고등학교학생수는 약 2.874 배, 그리고 대학생이 제일 많이 증가해서 3.315배였다. 그러나 이 통계숫자는 정부에서 大學生의 定員外 30%를 더 뽑도록 허가하기 시작한 1981년과 1982년의 통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의 증가는 이 率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또 최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아예 지금까지 통제해 오던 입학정원을 풀어 버리겠다는 소식이 있다.

현재 대도시의 대학들은 지난 4-5년간 갑자기 불어난 학생수때문에 커다란 진통을 안고 있다. 아직은 늘어난 학생인구에 비해 교육시설과 자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강의실 의자쟁탈전, 점심끓고 강의하기 등등 지금까지 初·中·高에서 보아 오던 소위 콩나물 교실, 대량생산교육의 파도가 갑자기 대학교 까지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은 어느 수준의 교육을 막론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즉 유치원·初·中·高·大가 모두 다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수준의 교육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콩나물 교실은 止揚해야된다. 그런데 大學校內的 콩나물교실은 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學者에 따라서 大學教育의 목표와 역할을 보는 눈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大學은 “學問을 하는 곳, 따라서 學者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主張하는 반면 어떤 학자는 大學은 “專門技能人을 양성하는 곳”으로 간주 한다. 어떤 見解가 옳으냐 하는 것은 學問에 따라 다르고(그것이 순수 학문이나 또는 응용학문이나에 따라) 그 나라 사회형편에 따라 다르다. 사실 美國과 같이 大學院이 充實한 경우, 대학교는 學者를 길러내기 보다는 專門技能人(그것도 準專門技能人 정도의)을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한편 大學院은 學者를 길러내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大學院人口가 적고 大學院 教育이 不充實한 경우에는 大學이 兩者의 임무를 다 같이 遂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우리의 大學은 그 형편상 어쩔수 없이 專門技能人도 길러야 하고 學者도 양성해야 하는 重責을 맡았기 때문에 大學이 지금과 같은 콩나물교실이 되어서는 무척 곤란하다. 예전대 학문은 촌각이 다르게 發展하고 있는데 교수는 백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주당 기준 강의시간 9시간이상을 강의하여 학원강사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다 보니 학자의 생명인 연구나 학생의 학문적 진로에 차질이 생긴다. 앞으로 계속 學生人口의 급증, 대학교육의 質低下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얼마 안가서는 직장에서 學士出身을 거부하고 碩士以上을 要求하는 곤란한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大學教育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학교의 노력만 가지고 不足하며 사회전체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첫째 각 정부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체는 高卒者와 學士間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직장내에서의 승진·승급에 차등을 과감하게 좁혀야 한다. 특히 기업체는 技能人을 우대하는 경영정책을 펴서 知能이나 經濟力이 뛰어나지 않는 靑少年들이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 오래근속한 工高出身의 技能人의 봉급이 大學出身의 副社長것 보다 더 많다는 부러운 예가 얼마든지 있다. 즉 울며 겨자먹기식의 그리고 너도가니까 나도간다는 식의 大學進學은 個人과 國家에게 하나도 得이 될 수가 없다.

한편 사회전체가 고등학교출신을 우대하고 이들을 과감하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初·中·高의 教育이 대폭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初·中·高의 教育은 大學入試를 위한 予備教育에 치중해 왔다. 이렇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大學門이 워낙 좁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교교육을 入試 爲主로 나가도록 압력을 넣은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10년간 고등학교졸업자의 대학에로의 進學率은 불과 20%를 약간 상회할 뿐이다. 즉 高卒者의 80%가 대학을 가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교육이 소수집단에 의해 大學入試를 위한 교육으로 나갔다는 것은 無力한 多數의 意思가 有力한 少數에 의해 無視당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初·中·高教育이 이렇게 大學入試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요즘은 中學校나 高等學校를 졸업하고서도 신문한장 제대로 못읽고, 편지한장 올바르게 못쓰며, 등기부 열람이 무엇이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 지도 모르는 비극이 생기게 된다. 즉 오늘날 中·高 校卒業者는 9년 또는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市民으로서 제대로 機能하기에 不足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각 사회조직이나 직장에서 자기 한몸도 주체 못하는 이들을 채용해서 높은 월급을 주기가 곤란한 것이다.

지금까지 初·中·高教育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게 된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예전대 교육시설 및 인적, 경제적 자원부족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밀려드는 폭발적인 학생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82년부터 教育稅가 신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정은 많이 달라지리라고 믿는다. 차제에 中·高等學校에서는 각각의 교육이 大學에 連繫되는 준비교육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最終段階인 교육이 되어서 卒業者가 하나의 市民으로 살아가는데 不足한 것이 없도록 實生活的이고 實社會的인 교육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민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방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울민국이라고 비판한다. 즉 정치 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사람은 敗北意識과 劣等意識에 쌓여 있다. 教育도 예외는 아니어서 地方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工夫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이에 따라 서울의 大學은, 만원이 되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不均衡에 착안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의 大學生定員은 억제하되 지방의 國公立大學에 대해서는 새로운 學科를 많이 新設해 주고 施設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려왔었다. 따라서 지방의 많은 大學이 급성장을 하고 또한 많은 우수한 교수와 學生들이 자기 고장에서 修學을 하는 바람직한 風土가 造成되었다. 더욱 바람직했던 것은 서울의 大學에 교수가 넘쳐 흘러 많은 우수한 교수들이 地方大學에 근무하게 되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묶였던 大學生定員이 대폭 해제되고 新設學科가 생김에 따라 서울에 다시 교수의 不足事態가 發生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대학은 이 不足한 教授들을 대부분 지방에서 充員할 수 밖에 없었다. 지방대학은 서울서 초빙해온 유능한 교수 밑에서 학생과 선생이 새로운 學風을 造成하려던 참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었다. “서울타도”를 은근히 외치던 학생들은 갑자기 氣가 꺾이게 되었고 또다시 서울에 대한 劣等感과 敗北感에 휩싸일수 밖에 없게 되었다.

地方學生의 서울에로의 留學은 서울의 人口集中化, 大學人口 폭증은 물론 地域間的 不均衡과 갈등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副作用을 產出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서울서 大學을 나온 地方出身學生들 중에 자기고장에 돌아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가를 실감할 수있을 것이다. 美國은 워낙 나라가 큰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나 각 道市는 각각 그 主要機能이 다르다. 예컨대 「워싱턴」은 政治를, 「뉴욕」은 經濟를, 「시카고」와 「핏츠버그」는 商業 및 生産을, 등과 같이 都市가 한 두개의 특징적 機能을 가지고 있지 서울처럼 모든 곳의 中心地가 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서울은 어차피 비대해졌고 따라서 그 機能의 一部를 따로 떼어 낸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 여기서 다만 教育機能을 地方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다면 것처럼 획기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것은 어찌면 可能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교수는 크게 두가지 機能을 遂行한다. 하나는 研究이고 또 하나는 강의다. 따라서 교수

에 따라서는 자기의 강의를 받는 學生의 質이 우수한가에 굉장히 比重을 두는 사람도 있다.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그 만큼 가르치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서울-地方 間의 差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學生의 質 때문에 地方大學으로 안간다는 교수는 그리 많지 않다. 教授가 서울에 남아 있으려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學問의 情報를 쉽게 接할 수 있고 研究할 조건이 낫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條件을 地方大學에서 교수에게 보장해 주고 또한 봉급을 특별히 고려해 준다면 서울의 찌드러운 公害와 소음속에서 이곳을 교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교수의 근무지 변경이 상당히 잦다. 그들은 대우를 잘해 주는 대학으로 이리 저리 자주 옮겨 다닌다. 대학교수의 봉급은 능력에 따라 크게 差가 나고 매년 프로 스포츠 맨처럼 그의 연봉이 실력에 따라 재계약된다. 또 학생들도 무조건 「하바드」대니 「예일」대니 하고 학교를 보고 들어 가지를 않는다. 자기가 전공한 과목의 유명한 교수가 어느 대학에 있는가를 보아서 그를 따라다닌다. 만일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면 앞으로 서울의 有能한 교수의 지방이전은 쉽게 이루어지고 지방학생의 劣等感이 해소되고 또한 교수의 士氣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금까지 筆者가 주장한 것은 門外漢의 非專門的 見解에 不過하다. 따라서 結論이나 提言은 생략하기로 한다.